

해남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가속도

녹색성장위 개최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교육·분리배출 실천

해남군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해남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을 사전 논의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8월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과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지역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심의·의결 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이 2023년 4월

발표됨에 따라 전남도 기본계획이 1년 이내 수립되며 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1년 이내 기초 지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해남군은 12월 선제적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주민 의견수렴과 해남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올해 시작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현재까지 10개 마을이 참여해 탄소중립 교육·분리배출 실천 등 주민이 중심인 탄소중립 실천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 관련 사업지원, 어두운 마을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태양광등 설치 지원 등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대상마을 4개소를 추가 선정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해남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을 사전 논의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상 기후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군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기본계획안의 세부사업에 관하여 실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남군의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영암군 특산물 활용 중간보고회 배·고구마·무화과·대봉감 가공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난 1일 군청에서 ‘특산물 활용 제품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배·고구마·무화과·대봉감, 영암군 특산물 4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장성 있는 차별화된 F&B(음식료) 개발을 위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돼 이달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기관인 코모즈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시제품 4종을 선보였다.

배를 가공한 배음료, 무화과로 만든 콤파치, 대봉감소스로 만든 떡볶이, 고구마로 만든 무스를 이용한 남생이빵이다.

개발 제품은 향후 가공업체와 업무협약을 거쳐 기술이전과 상품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영암=이병영 기자

겨울맞이 환경정화 활동

무안군 고향생각주부모임

무안군 고향생각주부모임(회장 이명숙)이 지난달 30일 겨울맞이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4일 무안군 고향생각주부모임에 따르면 이번 정화활동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무안군 고향생각주부모임 회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무안 평용나들목 교차로 주변에서 가을 내내 묵혀있던 쓰레기를 모두 수거했다.

이명숙 회장은 “무안읍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인 평용나들목은 청계에서 넘어가는 무안을 입구로써 무안을 이미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며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안군 고향생각주부모임은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무안군 고향생각주부모임이 지난달 30일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진도군, 15일까지

진도군은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가격(30점) △위생·청결(20점) △공공성(5점)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4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소재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군민에 소매단위로 물품과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다.

착한가격 신청메뉴가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프랜차이즈,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문의는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061-540-607)로 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창 부착 △착한메뉴판 제작 설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소모품 지원 △행정안전부 및 진도군 홈페이지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진도군 누리집 또는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를 방문(또는 팩스)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도=백재현 기자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2000명 돌파

지난달, 10월 대비 2.5배 ↑

완도군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가 연말을 맞아 크게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기준, 10월 대비 월간 기부 건수가 2.5배 가량 증가한 300여 건이 접수됐다.

올해 완도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2000여 명이다.

군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직장인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내에 주

소지를 두지 않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타 시군과의 상호 기부를 위해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지’를 제작·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1일에는 완도소방서를 방문하여 홍보 물품 배부 및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등을 홍보했다.

‘향우와 함께 인생네트 스티커 사진 찍기’, ‘고향 사랑 추억의 뽑기’ 이벤트 및 전남제천, 슬로걷기축제,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 등 행사 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군은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랜딩 페이지(www.wandolovelr)를 제작하여 쉽고 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군 공직자를 비롯하여 완도군의회, 완도군산림조합, 완도농협(완도군지부·노화·청산·소안), 소안수협 등 유관기관 및 완도를 주민자치위원회, 금일을이장단, 금당면 사회단체에서 상호 기부를 추진하는 등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완도=최경철 기자

목포시 9개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 공간 변신

목포시 행정복지센터가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목포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대성동 등 9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화공간인 ‘문화라운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동네에서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일부 공간을 세단장해 전시가 진행되는 곳은 용당1동, 연동, 대성동, 동명동, 죽교동, 용해동, 하당동, 옥암동, 부주동이다.



문화라운지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시민의 행정 및 복지를 위한 기관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서 접하면서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공유의 장

으로 예술가와 관객들이 소통하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문화라운지 전시는 ‘데이크 플레이스(Take place)’란 주제로 내년 2월 29일까지 계속된다. 목포 사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목포지역 및 출향작가 60여 명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 예술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이자 여향목포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취학 전 아동 안과 무료 검진

신안군, 증도·임자 등 48명

신안군은 지난 1일 지도읍 읍내리 문화센터에서 지도, 증도, 임자 지역의 취학 전 어린이 48명을 대상으로 무료 눈 정밀 검진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검진은 취학 전 아동의 눈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안군 보건소의 사전 수요조사 후 이루어졌다.

검진에는 소아안과 전문의료팀이 방문해 시력 검사, 조절마비 굴절검사, 약사·사시 검사 등 소아안과 전문의 정밀검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검진 결과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며, 이상소견이 있는 아동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계하여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는 수술비와 안경비 지원을, △약시는 가림 패치 지원 등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해남군, 4년 연속·국비 5억 확보

해남군은 농식품부 주관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해남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내년 사업 대상자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8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에게는 국내산 채소와 과일, 육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가 지원된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내 농협하나로마트, 농협몰(온라인), GS25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남군에서는 교통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매월 선별 포장한 농축산물 꾸러미를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사업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2인가구 5만 7000원, 3인 가구 6만 9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해남=전연수 기자